

인도, 아삼 가온출카의 라바족 가운데 현존하는 노틀담



2013 년 1 월, 인도 파트나 성모 승천 관구 수녀들이 아삼주(州) 봉가이가온 교구 소속 가온출카 마을에 새로운 분원을 열었을 때 노틀담 나무의 또 다른 가지가 솟아났습니다. 두 명의 수녀가 2013 년 1 월 이 새로운 공동체에 파견되었으며 6 개월 후 다른 한 명이 이 그룹에 합류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사도직에서 우리는 라바, 보도, 산탈이라는 세 부족과 접하게 되었습니다. 라바족과 보도족은 몽골족에 속하는 반면 산탈은 중앙 인도 이주민입니다. 가온출카에서는 사도직의 중점을 주로 교육과 라바족의 발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부족은 이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부족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977 년 많은 가족들이 이곳에 처음으로 일하기 시작했던 침례교 선교사들로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1983 년에는 이들 중 일부가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수녀들이 거주하는 가온출카에는 24 가구의 가톨릭 신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교 마을에는 다른 부족에

속한 신자 가족들이 있기도 한데 모두 매우 신심 깊은 신자들입니다. 본당이 15km 거리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날에만 성당에 가고 주일에는 마을에서 동네 교리교사들이 예식을 진행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수녀들이 자기들과 함께 지내면서 신앙 교육으로 도움을 주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모두 생계를 농업에만 의존하는 농부들입니다. 땅은 아주 비옥하고 부탄 힐의 평지에 자리잡고 있기에 비도 충분히 옵니다.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일 말고도 가족의 남자들은 이곳에서 많이 자라는 대나무로 만든 각종 생활 용품을 만들어 팔아서 수입을 보충하고 있고 여자들 역시 그들이 입고 있는 전통 의상을 짜서 그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근처 마을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강은 그들에게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우기 시작부터 겨울철 전까지 마을의 모든 가족들에게 충분할 만큼 물고기와 게 등이 잡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동네 사람들이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강물에서 물고기나 다른 것들을 잡고 있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 모두가 하루 양식을 넉넉하게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기는 하지만 교통 수단이 부족해서 그들이 키운 농작물에 좋은 값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 상태는 빈곤합니다. 이동이 불편하니 좋은 교육이나 보건의 혜택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마을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지만 헌신적인 교사가 부족해서 인구의 대다수가 문맹이거나 겨우 읽고 쓰는 수준입니다. 성인 인구 300 명중에서 6 명만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라바족은 다른 종족들 간에 이따금씩 발생하는 종족 분쟁에 대처해야

했는데 아삼주가 겪는 정치적 불안정은 우리 수녀들이 거주하는 코카르자 지역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봉가이가온 교구 토마스 폴로필릴 주교의 요청으로 수녀들은 벌써 임시 대나무 건물에서 두 개의 교실을 갖춘 영어 미디엄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39 명의 어린이들이 LKG 와 UKG 라고 알려진 취학 전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과 형제 자매들이 문맹이거나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수녀들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하고, 교리 교육과 젊은이들을 위한 성경 교실을 주관하고 마을 성당에서 교리 교사들과 함께 가족 기도와 기도 예식을 이끄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곳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를 살피며 수녀들은 교육받은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교육 분야와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는 프로그램에서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사람들은 수녀들에게 대단히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크고, 자주 쌀과 채소와 과일, 생선과 계를 나누어 주곤 합니다. 이 사도직이 새롭고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단순성과 따뜻함, 열린 마음은 수녀들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종으심과 섬리적인 돌보심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메리 디피카 수녀
메리 아니타 수녀
메리 사비나 소렌 수녀